

전북현대 흥경기서 임실 홍보

‘임실군의 날’ 행사 갖고 임실N치즈축제 등 알려... 심민 군수, 명예 홍보대사 위촉

대한민국 치즈 수도, 임실이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 28라운드 '전북현대모터스'와 'FC서울'과의 흥경기에서 '임실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2만3천여 관중의 호응 속에 전주시성이 들썩였다.

이날 행사는 10주년 2024년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유일의 프로축구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와의 우호 증진을 통한 군정 및 지역 특화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심민 군수와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의 선수단 격려와 기념 촬영, 시축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전반전 종료 후에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임실N치즈축제 홍보 동영상 시청하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끈 사격 은메달리스트 임실군청 김예지 선수의 축제 홍보 및 경기 승리를 위한 응원 영상이 이어지며, 경기장을 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심민 군수는 이날 전북현대모터스 구단측으로부터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2025년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프로축구 명문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와 함께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경기장 입장객을 대상으로 임



임실이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K리그 28라운드 '전북현대모터스'와 'FC서울'과의 흥경기에서 '임실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2만3천여 관중의 호응 속에 전주시성이 들썩였다. 또한 심민 군수는 이날 전북현대모터스 구단측으로부터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실N치즈축제 홍보 리플릿과 스트링치즈 1천 개를 증정했으며, 현장 관중을 대상으로 진행한 깜짝 이벤트에서는 특산품인 임실치즈세트(10개)와 소시지세트(6개)를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심민 군수는 "전북현대의 흥경기에 임실군의 날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서울 및 도내 관중 여러분이 경기도 보고,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임실N치즈축제가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치즈테마파크 등 임실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는 대한민국 최초 치즈를 주제로 10주년 기념 △숙성치즈 속에 숨겨진 황금 10톤 이벤트 △저지중 원유 이용 프리미엄 숙성치즈 홍보 등을 비롯해, 천만송이 국화를 배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형 쌀피자 만들기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치즈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디지털교과서 활용 도로명주소 교육

남원시, 초등학생 대상 추진

남원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시범 교육 및 홍보를 추진, 9월부터 송동초, 산동초, 인월초 3학년과 4학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 교육에 활용되는 디지털교과서는 메타버스 속 가상공간에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체험하는 '플래이스터'라는 프로그램이며, 기존 도로명주소 교육은 전문 교재 없이 동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되어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초등교사의 부담이 있었다.

이번 교육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서 담당 주무관이 '내로, 로, 길' 등 도로에 대한 이해부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념까지 직접 설명하고, 가상공간에서 도로명을 이용해 친구 집을 캐릭터로 함께 찾아가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찾는 방법을 배우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로명 주소로 위치 찾는 요령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게 한다면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이 필요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이번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2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 본격 가동

순창군의 대표 소통 플랫폼인 '제2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8월 3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군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고자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민혁신추진단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지난해 첫 출범한 단체로, 올해 제2기를 맞아 더욱 다양한 분야의 군민 대표들로 재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추진단은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7명의 군민들로 구성되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태성 추진단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책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인구소멸 대책, 농업인 소득 향상 방안 등 순창군이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 찾기에 열의를 보였다.

군은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와 건의사항들을 각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테니스 대회 성료

12개국 250여명 선수 참가... 남자 복식·여자 단식 순창군청 1위

순창군이 전 세계 소프트테니스의 큰 잔치인 '2024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제적인 스포츠산업의 중심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맞는 이번 대회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연맹(회장 최익원)과 전북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공동 주관했으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후원으로 개최됐다.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중주국 일본을 비롯해 대만, 인도, 필리핀, 태국, 네팔, 베트남, 동티모르 등 12개국에서 2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2024 순창 오픈 종합 소프트테니스 대회에서 순창군청 소속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사진 오른쪽 하이스타 리코 선수)

대회기간 동안 순창군은 선수 편의 제공을 위해 해외 선수들을 위한 외국인 전용 숙소 운영, 군청 버스를 활용한 숙소-대회장 간 셔틀 서비스 제공, 폭염 대비 충분한 얼음물 공급과 선풍기, 물링포그존, 관람석 냉풍기 설치 등 선수와 관중 모두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순창군청 소속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다. 함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윤형욱, 김병국 선수가 남자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순창군의 특급 용병 하이스타 리코 선수는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서, 혼합복식에서는 순창군청 오승규 선수가 사하구청 안지혜 선수와 팀을 이뤄 동메달을 추가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오픈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신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정인선 회장 등 관계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순창군이 글로벌 소프트테니스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수도권서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남원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남원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고자 서울에서 주최하는 서울 큰장터(9.2~9.4) 및 자매결연 도시인 오산시청(9.5~9.7), 구로구청(9.11~9.12), 서초구청(9.12~9.13), 성남시청(9.13)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하여 추석맞이 남원시 우수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직거래장터는 민선8기 들어와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과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를 맺으면서 성남시청과 오산시청이 추가되어 남원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판매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온라인 추석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북생생장터(http://freshj.com) 및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소핑몰(mail.epost.go.kr)에서도 남원시 농특산물 입점 업체들의 택배비 지원 등 홍보 프로그램 지원을 지원하여 입점 업체들의 추석 선물 판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장터에는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농산물인 배, 포도와 농식품 김부각, 추어탕, 꿀, 청주, 탁주, 목기 등 남원만의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운봉읍, 저소득 아동 가구 주거환경 개선

남원시 운봉읍은 지역 내 저소득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다문화·다자녀 저소득가구이며, 올해 처음 출범한 운봉읍 복지기동대 운영 중 발굴한 대상으로, 초기집을 직접 개조한 집이 노후화로 인해 천장에 물이 새고 바닥이 가라앉은 등 긴급 수리가 필요한 가구였다.

이에 복지팀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집수리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 수리 지원을 신청해 1,300만원 지원을 확보하고 남원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해 약 2,30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서, 2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9월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